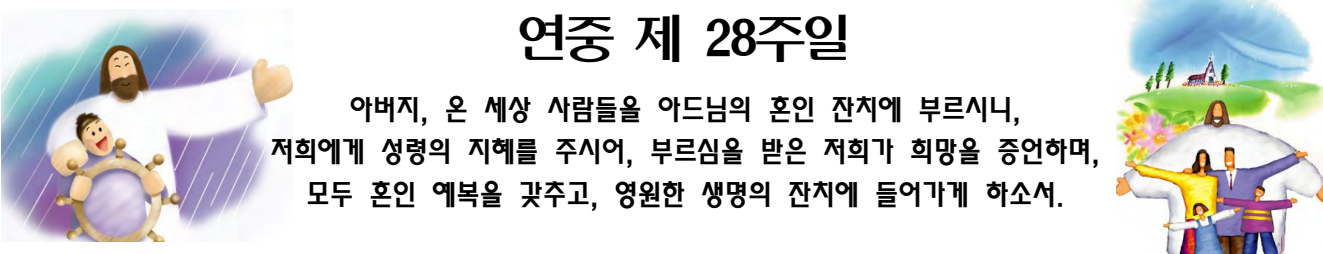


공동체 소식

연중 제 28주일

아버지, 온 세상 사람들을 아드님의 혼인 잔치에 부르시니,
저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가 희망을 증언하며,
모두 혼인 예복을 갖추고,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 들어가게 하소서.



10월 기도지향

- 감영진 라파엘, 한춘희 라파엘라 가정
- 김병철 베네딕토, 김경희 스콜라스티카 가정

☞ 교황님 기도 지향 : 주님께서 전쟁과 폭력에 시달리는 지역들에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묵주기도 성월

교회는 해마다 시월을 ‘묵주기도 성월’로 지냅니다. 묵주기도를 자주 바치는 가운데 예수님과 성모님의 신비들을 깊이 묵상하며 믿음을 더욱 깊게 하려는 것입니다. 교황 레오 13세는 ‘묵주기도 성월’을 제정하시며, 세계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묵주기도를 자주 바치자고 권고하였습니다.

예비자 교리반 안내

- 첫 모임 : 10/7(화) 오후 8시
- 장소 : 성당 지하실
- ☞ 예비자 봉헌에 공동체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새 주소록 발행

<2015년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주소록>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각 구역장님들은 누락되는 교우 가정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고, 총괄책임은 선교부에서 담당하겠습니다.

사제관과 회관 DECK 철거

평협의 결정대로, 10/18(토) 오전 9시부터 사제관과 회관의 DECK를 철거합니다. 형제자매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로렌스 공동체 미사

- 일시 : 10/25(토) 오후 5시
- 장소 : 성 로렌스 성당

법륜스님 ‘희망세상 만들기’

- 일시 : 10/31(금) 오후 7시
- 장소 : Shawnee Civic Center
- 13817 Johnson Dr. Shawnee, KS 66216

기타

- 10/19(일) 중심미사 후, 평협회의 있습니다.
- 교무금은 점심식사 전, 재무 위원들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329	512	165/174	29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주	정병훈 보니파시오 차호섭 요셉	문호진 안토니오 차서은 세라피나
차주	정수한 베드로 문석찬 요셉	정예찬 미카엘 문예나 요안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박혜정 카타리나	문석찬 요셉 백문주 엘리사벳
차주	김주연 세실리아	감영진 라파엘 한춘희 라파엘라

애찬 봉사자

금주	박혜정, 조지연, 장남순, 김경돌
차주	김시연, 신혜경, 조경희, 김말차

헌금 봉사자

금주	백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차주	이우영 가브리엘, 박희영 카타리나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10/5	80명	374불	1,620불
양경직, 이내익, 홍순익, 박동희, 문석찬, 정석원, 조지연, 정수한, 이영민(총 9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만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연중 제28주일인 오늘, 우리는 하느님의 구원의 초대를 듣습니다. 하늘 나라는 기쁨과 평화가 넘쳐흐르는 풍성한 잔칫상입니다. 그러나 현세의 삶 속에서 이 천상 잔치를 예감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게 되는 풍요로움에 맞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늘 나라에 대한 열망을 잠시도 잊지 않기를 청합니다.

그림 묵상



혼인잔치의 초대

많은 사람이 하느님의 거룩한 혼인 잔치에 들어가 즐거워하는데 혼인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슬퍼하며 물러갑니다. 나만, 우리 가정만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우리 가까이 아무도 모르게 힘들어 하는 이는 없는지 관심을 갖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마음을 쓰고 가진 바를 나눈다면, 혼인 잔치에 들어갈 아름다운 예복을 갖춰 입을 것입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서 : 이사 25,6-10 < 주님께서 잔치를 베푸시고,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 내시리라. >



오 래 오 래 주 님 궁 예 사 오 리 - 다

- 주님께서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파야란 풀밭에 이 몸 누여 주시고 고이 쉬라 물터로 나를 끌어 주시니 내 영혼 심심하게 생기 돌아라. ◎
- 주님께서 당신 이름 그 영광을 위하여 곧은 살 지름길로 날 인도하셨어라.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간다 해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무서울것 없나이다. ◎
- 당신의 막대와 그 지팡이에 시름은 가시어서 든든하되다 제 원수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 주시고 향기름 이 머리에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되다. ◎
- 주님께서 당신 이름 그 영광을 위하여 곧은 살 지름길로 날 인도하셨어라. 한평생 은총과 복이 이 몸을 따르오리니 오래오래 주님 궁에서 사오리다. ◎

제 2 독서 : 필리4,12-14,19-20

<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복 음 : 마태22,1-14<또는22,1-10> <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

쉐 마

“끊임없이 초대하시는 분”



한 임금이 아들의 혼인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이 혼인 잔치에 초대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왕족, 귀족, 고관대작들이 초대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금은 그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초대한 것 같습니다. 종을 보내서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는데, 그들이 밭에 가고, 장사하러 가면서 혼인 잔치에 가지 않습니다. 일부는 그 종들을 때리고 죽입니다. 마피아까지도 이 임금은 아들 혼인 잔치에 초대할 것 같습니다.

자기와 친분이 있고, 이득이 될 성 싶은 명문가의 기득권층만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밭에서 일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못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까지 다 초대했습니다. 마치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를 당신의 나라로 초대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이 혼인 잔치에 오지 않자, 임금은 다시 종들을 시켜 거리에 나가 어떤 이도 상관없으니 혼인 잔치에 초대하도록 시킵니다. 임금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혼인 잔치로 초대합니다.

혼인 잔치란 어떤 것입니까? 한 쌍의 남녀가 사랑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새 출발의 자리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젊은 남자와 여자가 있고, 이들을 사랑스럽게 대견하게 바라보는 그들의 부모가 있습니다. 많은 친지, 지인들이 축하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얼마나 사랑과 희망이 넘칩니까! 임금 아들의 혼인 잔치이니 음식은 또 얼마나 잘 차렸겠습니까! 제일 좋은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흥겹고 기쁜 자리에 어떻게 안 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밭일이 장사가 더 중한 모양입니다.

우리는 이런 초대에 즉각 응답하고 제일 좋은 옷을 차려입고 잔치에 선물까지 들고 갑니까? 아니면 작업복 차림으로 일터로 가버립니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계십니까?

하느님의 초대가 중합니까? 다른 일상이 더 앞섭니까? 하느님의 초대란 무엇일까요? 미사와 기도생활이 하느님의 초대일까요?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하느님의 초대가 아닙니까?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사랑과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초대합니다. 임금 아들의 혼인 잔치와 같은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고, 맛난 음식들이 많이 차려져 있고, 사람들은 격 없이 서로 웃고 이야기하고, 인사하고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는 그런 곳으로 우리는 초대됩니다.

이런 초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치고 힘겹고 어려운 하루에 짜증만 남니까? 매 순간 우리는 혼인 잔치와 같은 하느님께서 계신 곳으로 초대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지옥과 같이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는 두렵고 힘든 곳을 선택할 자유가 주어집니다. 밭에 가서 일해야만, 장사하러 가야만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밭에도 장사하는 일터에도 하느님께서서는 잔칫상을 펼쳐놓으셨습니다. 끊임없이 그 잔치로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임금의 궁전에만 혼인 잔치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리 한복판에서, 내가 일하는 공장에서, 하루 종일 있는 우리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우리는 하느님께서 열어주시는 잔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초대에 응한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지옥의 불구덩이도 선택합니다. 그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말입니다.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느님께서서는 다시 손을 내미십니다. 당신께서 마련하신 잔치에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자의든 타의든 지옥을 걸어가고 있다고 해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유효기간이 없는 초대장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 예수회 김종일 신부 -

주춧돌

제 1 편 하느님 공경

제11-1장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 줄 것입니다(필리 4,6-7).

【주석】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 도처에 ‘걱정하지 마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마태 6, 31).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무심함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모든 근심 걱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로 표출되는 신뢰심을 말한다(주석 성경, 신약, 62).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느님께서서는 자녀의 청을 물리치지 않으시므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설명】

걱정스러운 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이 필리피서를 쓸 때 바오로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 걱정스럽고 어려운 처지에 처한 것이다. 그러나 바오로 사도는 옥중에서 걱정하지 말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권고한다. 바오로 사도는 만사를 선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교회의 가르침】

- ▶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것은 늘 기도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길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2668항).
- ▶ 기도는 노력을, 그리고 유혹자의 계략과 우리 자신에 맞서는 싸움을 전제로 한다. 기도의 싸움은, 평소에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필요한 ‘영적인 싸움’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사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2752항).
- ▶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1테살 5,17). 기도는 언제나 가능하다. 나아가, 기도는 절대 필요한 일이다. 기도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2757항).

【어록】

- ▶ 저갯거리에서나 혼자 산책할 때에도, 자주 그리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중에도, 또는 요리를 하는 중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 ▶ “기도하십시오. 마치 못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적게 기도하는 사람은 위태롭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벌 받을 것입니다. 의지를 보시고 상을 주시는 것이지,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피에트랄치나의 성 비오 사제).”
- ▶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언제나 경당이나 교회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 때문에 기도를 멀리해서는 안 되며, 기도 때문에 일을 멀리해서도 안 됩니다(성녀 마더 테레사).